세방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항만하역감독직

-성장과정

"유연한 나무는 강한 바람과 싸울 때 구부러질 뿐, 바람이 멈추면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 군대시절 통신관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자 제 생활신조입니다. 물류유통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물류·유통업에서 유연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초,중,고 시절 반장과 임원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활 동안 팀 프로젝트 수행 시 팀장으로서의 팀원들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는, 한울이라는 사물동아리 회장을 역임하며 재학생과 졸업선배님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되 회장으로서 저만의 색을 잃지 않는 자세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8살 지금,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된 유연한사람, 긍정적인 이상옥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olncruit "천재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저의 장점은 항상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점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성입니다. 이런 적극성과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자세는 저를 여러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며, 적극성을 통해 높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세방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 이어서 일까?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일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단계를 무시하며 그동안 많은 실패도 경험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하여 모든 일에 있는 체계적인 단계를 배우면서 차츰 그러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였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밑거름 삼아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이상옥이 되었습니다.

-가치관

"Spec 보다는 삶의 풍부한 Spectrum 을 꿈꾸는 청년" 흔히 말하는 Spec 이 과연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20 살부터 현재까지 여러가지 일을 하며 살아온 저 이상옥은 감히 자신있게 누구보다 경험과 실전에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 제대 후의 롯데마트에서 FO로써 고객관리,

공채의 신으로 돌아온 대세, 인크루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직원관리 등의 소중함을 느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주임활동은 인터넷쇼핑몰의 고객들의 불만처리, 제품의 매출인상을 위한 마케팅등을 배웠습니다. 여수주조공사에서의 2년 가까이라는 시간동안 많은 분들이 그만두었지만, 제가 계속 버티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자면인내와 고객서비스입니다. 물류, 유통팀으로써 직접 고객들의 여러 가지 일을 상대하다보면 말도안되는 일 등 많은 사건이 있지만, 이것을 유연성있게 대체함으로써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약 6개월간의 배낭여행은 우물안 개구리인 마냥 좁은시각을 넓게만들어주었습니다.

-지워동기

"물류는 기업의 심장이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전자 전공으로 꾸준히 공부하여 취업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으로의 편입은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류는 모든 기업활동의 핵심이자 시작과 끝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전남대학교 물류교통학과에 편입하여 물류를 전공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물류기업들을 알아보고 있는 도중 세방의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을 결정하게되었습니다. 세방의 항만하역감독직에서의 직무내용은 하역물품의 제품검수, 하역절차의 안정성고려, 하역절차의 체계화, 여러직원들과의 화합등 일것니다. 여러 종류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 직무들은 제가 가장 자신있는 부문이며,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민국 대표 종합물류기업 '세방'을 위해, 또한 저를 위해, 열시히 발로 뛰어보고자 세방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후 포부

"직장은 제 2의 배움터"

대학에서의 공부는 실제 사회생활의 10%만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서 알수 있듯이 직장은 제 2 의 배움터라고 할수 있으며,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연봉이 얼마? 미래가 든든한가? 복지는 좋은가? 이러한 점보다는 이 회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혼자만의 성장이 아닌회사와 저와 함께 성장 할수 있는곳이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세방 신입사원 공고를 보고 세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 항만하역사업에 첫발을 내딛고 많은 발전을 통해 전국 주요 항만에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 세방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물류 시스템과 물류네트워크망을 가진 세방이라면 분명한 비전이 있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